

### 급성신부전이 합병된 S-결장의 소세포암 1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내과  
허성은, 나종명, 김성경, 주강, 조흥주, 신영신, 김훈교

소세포암은 원발성 폐암의 18-20%를 차지한다. 소세포암의 96%가 폐에서 기원하며 약 4%는 폐 이외의 부위에서 발생한다. 자궁 경부, 후두, 인두에 발생하며 소화기관은 드물지만 식도, 위, 췌장, 내장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폐 이외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세포암은 매우 공격적이며 주위 림프절과 혈관, 뼈 등으로 빠르게 전이하여 예후가 불량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자들은 S-결장에서 발생한 소세포암으로 수술 후 항암 요법을 하였으나 5개월 만에 골전이와 동반되면서 수신증에 의한 급성 신부전이 합병된 증례를 경험하였다.

47세 여자환자가 S-결장암으로 K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서 소세포암으로 진단되어 Etoposide - Cisplatin chemotherapy를 3회 시행하였다고 한다. 수술 5개월 후에 급성 측복부 통증과 무뇨 증상으로 우리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복부 CT스캔에서 복강내 내용물 및 주변으로 림프절이 커져있었으며 복부 초음파검사에서는 양쪽 신장이 커져 있었다. Bone scan에서 흉추 3번, 7번에 골전이 소견이 있었다. 혈액검사에서는 Hb 이 9.7 g/dl 로 감소되어 있었고 BUN/Cr 은 46.9/9.2mg/dl로 증가되어 있었다. 환자에게 응급 혈액투석을 실시하고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하였으며 시술후 신기능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환자는 현재 Irinotecan 항암 요법 중에 있다.

### 유방암 재발과 동반된 피부근염 1예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현동호\*, 이문희, 송정수, 김인호, 김철수

피부근염은 다발성근염과 함께 근위근의 대칭적 비화농성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원인불명의 결합조직 질환이다. 피부근염은 악성종양과 관계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악성종양의 종류와 악성종양의 발생과의 시간관계에 대하여서는 다양하게 보고되어왔다. 국내에서는 피부근염과 관련된 악성종양에 대한 여러 보고가 있었으나 악성종양의 재발과 관련된 보고는 없었다. 저자들은 내원 25개월전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좌측유방 부분절제술과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후 재발의 증거없이 외래 추적관찰중 근무력감과 피부발진을 주소로 입원한 50세 여자환자에서 유방암 재발이 확인되어 유방암의 재발과 동반된 피부근염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50세 여자 환자가 8달간 지속된 피부발진과 근무력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1999년 11월 우측 유방암을 진단받고 부분 유방절제술 시행받았고 수술후 병기는 T1N1M0였고 6차례의 Cytosan/5-FU 항암치료와 5940cGy 방사선치료 시행후 재발의 증거없이 2001년 9월까지 외래 추적관찰 중이었다. 입원시 이학적 검사상 상하지의 굴근에서 근력 4도의 대칭적 근력감소를 보였고 안면, 흉부에 Heliotrope rash와 양쪽 수지 관절부위에 Gottron's papule이 관찰되었다. 검사실 소견상 백혈구 2,800/mm<sup>3</sup>, 혈색소 12.7g/dl, 혈소판 177,000/mm<sup>3</sup>, AST 32IU/L, ALT 12IU/L, CPK 55IU/L, LDH 710IU/L 보였고 혈청 myoglobin 음성, aldorase 5.2IU/ml이었고 면역혈청검사서 ANA 양성(1:80) 보였다. 복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흉벽의 오른쪽 앞부분에 종괴와 양측 종격동 림프절이 새롭게 보였고 양측의 흉막삼출과 심장막삼출이 관찰되었다. 근전도 검사에서 상하지 근위부 근육들에서 운동유발시 작은 진폭과 짧은 기간의 다상성 운동단위 및 조기 등원능이 관찰되었다. 흉막삼출액 세포검사상 선암이 관찰되었고 우측 넓다리에서 시행한 피부병리소견은 위축된 표피, 기저층의 수포성 변성과 혈관주위 림프구의 침윤이 관찰되었고 우측 넓다리내모근에서 시행한 근육병리소견은 혈관주위와 간질에서 림프구의 침윤이 동반된 근섬유의 괴사와 부분적으로 근육섬유 사이로 섬유화, 지방침윤이 관찰되어 유방암의 재발과 동반된 피부근염으로 진단하고 prednisolone 60mg 경구투여 후 피부발진은 호전되었고 6차례 Taxol/Epirubicin 항암치료 시행받고 시행한 흉부단층촬영에서 흉막삼출과 심장막삼출은 모두 소실되었고 현재 prednisolone 15mg 투여중이다.